

우리 아이 서울로 대학보내면 4년간 얼마나 들까

91학번 3241만원

01학번 8430만원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평균 소요비용 (단위: 만원)		
91학번	01학번	04학번(미래 추정)
1 등록금(1991~1994) 240+260+280+301=1081	1 등록금(2001~2004) 490+510+545+600=2145	1 등록금(2004~2007) 600+630+670+710=2610
2 하숙비 평균25(만원)×48(개월)=1200	2 하숙비 평균 35(만원)×48(개월)=1680	2 하숙비 평균 40(만원)×48(개월)=1920
3 용돈(생활비) 평균20(만원)×48(개월)=960	3 용돈(생활비) 평균28(만원)×48(개월)=1344	3 용돈(생활비) 평균 30(만원)×48(개월)=1440
4 여학연수 예) 캐나다 밴쿠버로 1년 영어 연수시 2000	4 여학연수 예) 캐나다 밴쿠버로 1년 영어 연수시 2500	4 여학연수 예) 캐나다 밴쿠버로 1년 영어 연수시 2500
5 영어학원 등 취업 과외비 4년 합계 평균 1261(2002년 기준)	5 영어학원 등 취업 과외비 4년 합계 평균 1261(2002년 기준)	5 영어학원 등 취업 과외비 4년 합계 평균 1261(2002년 기준)
총: 1081+1200+960=3241	총: 2145+1680+1344+2000+1261=8430	총: 2610+1920+1440+2500+1261=9731

지방출신 대학생 기준, 4년6학기만 다니고 가정하고 사학진흥재단, 중앙대 학생생활연구소,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유학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임

#1. 서울 모 사립대 신문방송학과 92학번 정모씨(31). 경남 출신인 그는 4년 동안 학교 근방에서 하숙을 했다.

박씨는 지난해 5000만원을 들여 영국 런던으로 1년간 여학연수를 다녀왔다.

당시 2인1실 하숙비는 22만원. 정씨의 부모는 하숙비를 포함해 매월 45만원을 그에게 부쳤다. 그는 군복무를 마친 후에는 생활비가 약간 올라 매월 60만원씩 받았다.

박씨의 등록금은 한 학기 280여만원, 기타 학원비 등 한 달 생활비 60만원 정도를 감안하면 입학 후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지금까지

정씨가 입학 때 낸 등록금은 입학금까지 모두 124만300원. 졸업하기 등록금 177만원까지 정씨가 학교에 낸 학비는 약 1106만원으로, 정씨가 입학한 후 학교를 마칠 때까지 든 비용은 모두 3447만원이었다.

약 9040만원을 썼다. 졸업까지 남은 학기를 생각하면 박씨의 졸업비용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2. 대전에서 올라온 모 여대 2001학번 박모씨(23)는 매월 50만원을 내고 하숙집에서 지낸다. 원룸이 유행이지만 식비, 세탁 문제 때문에 원룸과 비슷한 비용의 하숙을 선택했다.

경기침체로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대학생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쓰는 비용은 과거 "소 팔아 대학 간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늘어났다.

▽2001학번 졸업비용 91학번의 2.6배=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91

년 240만원, 92년 260만원, 93년 280만원, 94년 301만원이었다. 따라서 91학번의 4년 평균 등록금은 1081만원. 여기에 지방 출신 학생의 경우 하숙비 등 4년간 주거비용 1200만원(월 평균 25만원 기준)이 추가된다. 한 사립대의 대학생학원

답해야 한다. 하숙비가 월 평균 35만원가량을 감안하면 주거비만 해도 4년 동안 최소 1680만원이다.

여기에 2003년 대학신문이 서울 지역 8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 평균 생활비와 영어학원 등 취업을 위한 교육투자비, 여학연

아가고 있기 때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활동에 나선 20대가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개월, 김씨가 취업하는 데 1년이 걸린다면 그의 부모는 면접 준비를 위한 의복비 등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최소 114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등록금-생활비 10년새 2.6배... 여학연수 비용증가 큰몫

구소 연구자료에 따르면 용돈 등 당시 대학생 1인당 생활비가 4년 평균 960만원(월 평균 20만원)이 었으므로 모두 합하면 지방 출신 91학번 학생이 졸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3241만원.

수비를 추가할 경우 2001학번 학생이 졸업하기까지 필요한 총 비용은 대략 8430만원에 육박한다.

이제는 10년 전 입학생인 91학번 졸업 비용의 2.6배에 해당한다.

▽졸업이 끝이 아니다=올해 2월 서울 S대 국문과를 졸업한 김모씨(23·여)는 졸업 후에도 하숙비와 학원비 등 매달 95만원을 부모님께 받고 있다. 졸업하기 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살

반면 지방 출신 사립대 2001학번의 경우 2001년 490만원, 2002년 510만원, 2003년 545만원, 2004년 600만원(추정)으로 4년 동안 등록금만 평균 2145만원을 부

▽전문가 견해=연세대 사회학과 김현미(金賢美) 교수는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을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한 통과의례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가이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張德鎭) 교수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해야 할 인력들이 대학 졸업장을 따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정영환기자 ray@donga.com

오늘의 날씨

호남과 경남, 제주지방은 흐리겠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낮 한때 구름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포근하겠다.

●눈/비 확률(%)

지역	오전	지역	오후
80	60	40	20
20	20	40	60
40	60	80	80

해상	풍향	풍속	파고
서해	서~북서	6~9m	0.5~1m
남해	북서~북동	6~9m	0.5~1m
동해	북서~북동	7~11m	0.5~1m

지역	만조	간조
부산	10:40 22:58	04:26 16:30
인천	07:49 19:52	01:30 13:50
군산	06:08 18:11	00:41 12:59
목포	04:57 16:56	10:06 22:10

●세계날씨

파리	오스카바	베이징	LA	워싱턴	런던	홍콩	시드니	도쿄	뉴욕
0~8	4~8	5~18	12~21	8~18	2~8	20~23	18~26	8~16	9~12

●주간날씨

지역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서울	4/15	5/16	7/16	7/13	4/15	5/16
영동	4/12	5/15	7/15	5/13	4/15	5/17
충청	3/17	5/18	7/17	7/14	4/17	5/18
대전	3/17	5/18	7/17	7/14	4/17	5/18
호남	3/18	5/18	8/16	8/15	5/17	6/18
관주	6/15	7/15	8/17	8/15	6/14	7/16
영남	5/17	5/16	7/18	7/15	4/15	5/17
부산	6/15	7/15	8/17	8/15	6/14	7/16
대구	5/17	5/16	7/18	7/15	4/15	5/17
제주	6/16	8/17	8/16	9/16	6/17	5/17

●골프장 날씨

지역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서울경기	4/15	5/16	7/16	7/13	4/15	5/16
충청	3/17	5/18	7/17	7/14	4/17	5/18
호남	3/18	5/18	8/16	8/15	5/17	6/18
영남	5/17	5/16	7/18	7/15	4/15	5/17
부산	6/15	7/15	8/17	8/15	6/14	7/16
대구	5/17	5/16	7/18	7/15	4/15	5/17
제주	6/16	8/17	8/16	9/16	6/17	5/17

비리 장성에 軍비리근절 말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장 부임前수뢰 드러나 구속

국방부가 군내 시설공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 1월 말 창설한 국방시설본부의 최고책임자가 2년 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국방시설본부장인 박모 준장을 2002년 모 군 사령부 공병부장 재직 당시 D건설업체에서 공사 수주와 편의 제공 등

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박 준장이 같은 해 11월 후배 장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준장은 "양쪽에서 받은 돈은 모두 빌린 것으로 이미 다 갚았다"고 해명했으나 군 검찰은 박 준장이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독감 조심하세요" ...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 1000명당 독감환자 수가 3명을 넘어서 전국에 독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이번 독감은 고열, 목감기 증상이 근육통과 함께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며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외출 후 귀가하자마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병원

에서 감염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전파 방지를 위해 3~7일간 집에서 쉬는 게 좋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월 29~3월 7일 1주일간 외래환자 1000명당 2.29명이었던 독감 환자 수가 7~13일에는 3.34명으로 독감주의보 발령 기준인 3명을 초과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건강보험 용어 쉬운말로 바꾼다

남수진 → 과다진료
경구약 → 먹는약
이중검수술 → 쌍꺼풀수술

'남수진, 복명서, 수증, 이중검수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건강보험 관련 용어들이 쉬운 말로 바뀌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자식 표현이나 일본식 보험 관련 용어 193개를 일상용어로 바꾸기로 했

다고 24일 밝혔다. '남수진'은 '과다 진료', '복명서'는 '결과 보고서', '수증'은 '기증판다', '이중검수술'은 '쌍꺼풀수술'로 바뀌게 된다. 이 밖에 '경구약'은 '먹는 약', '내원'은 '병원 방문', '우식증'은 '충치', '제당금'은 '미리 지급한 비용'으로 풀이된다. 보험공단측은 25일부터 환자 상담 등 일상 업무에 바뀐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관련 법 규정도 새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덕수궁미술관 등 4곳 야간개방시간 늘린다

국립중앙도서관 내 야간도서관 =매주 월~금, 오후 6~9시→오후 6~10시 △국립경주박물관=매주 목~금, 오전 9시~오후 6시→오전 9시~오후 9시 △덕수궁미술관=매주 목~금, 오전 9시~오후 6시→오전 9시~오후 9시

△국립중앙도서관 내 야간도서관 =매주 월~금, 오후 6~9시→오후 6~10시 △국립경주박물관=매주 목~금, 오전 9시~오후 6시→오전 9시~오후 9시 △덕수궁미술관=매주 목~금, 오전 9시~오후 6시→오전 9시~오후 9시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고속철 승차권 첫 예매 박영대기자 sannae@donga.com

체육진흥공단 운영 일산 스포츠센터 불링장 없애고 경륜권판매소 추진

주민들 "사실상 도박장" 반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올림픽스포츠센터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불링장을 없애고 대신 도박성이 강한 경륜권 판매소를 짓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올림픽스포츠센터 내 4층 730평의 불링장을 5월부터 폐쇄하는 대신 매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경륜경기를 보면서 돈을 걸어 승리자를 맞히는 경륜권 판매소를 설치할 예정이

다. 공단은 내부 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해 고양시에 증축신고를 했고 운동시설을 관람집회시설로 변경해 경륜권 판매소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별도로 제출했다.

공단은 레인 상태가 나쁘다보니 회원이 20여명에 불과해 연간 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불링장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1998년 17개 레인으로 문을 연 이 불링장은 레인 설치 회사의 부도로 부품 공급이 안돼 현재 8개만 정상

운영되고 있다. 회원 김모씨는 "공단이 불링장을 살리는 방안을 찾지 않아 회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체육시설 대신 도박장과 다른 시설을 짓는 것은 주민과 스포츠회원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이 센터 건물 3층에는 경륜권 판매소가 영업 중이며 매주 금요일부터 주번 교통이 불법 주차로 마비되고 노점상과 취객들로 인해 인근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고양=이동원기자 argus@donga.com

부고

- ◇高錫振(수원 영화교회 장로) 錫九씨(아이에프그룹 회장) 모친상=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3010-2293
- ◇金永洙(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장) 金洙씨(인천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興洙씨(국민은행 용산기금공용지점장) 모친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3410-6910
- ◇金明倉(고양문화재단 관리본부장) 明倉씨(충남대 미술관 상무) 徹倉씨(농업) 모친상=24일 대전 충남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42-221-4028
- ◇李東哲씨(한해네스교역 전무) 모친상=24일 일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31-908-1599
- ◇李萬雨(사단법인 문화방송사우회 부회장) 大都(전 동원중 교장) 亨雨씨(자영업) 모친상=24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31-810-5471
- ◇朴秀正(예금보험공사 팀장) 秀正씨(자영업) 秀權(세실정보기술)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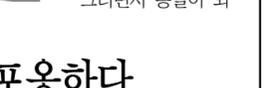
- 문) 秀萬(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秀龍씨(백상정신과의원 의사) 부친상=任修吳씨(경기여고 교사) 시부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02-3410-6917
- ◇李炳宣씨(충남대 홍보팀장) 부친상=24일 대전 충남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42-221-4028
- ◇李東哲씨(한해네스교역 전무) 모친상=24일 일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31-908-1599
- ◇李萬雨(사단법인 문화방송사우회 부회장) 大都(전 동원중 교장) 亨雨씨(자영업) 모친상=24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31-810-5471
- ◇朴秀正(예금보험공사 팀장) 秀正씨(자영업) 秀權(세실정보기술) 고

- ◇鄭元在씨(하아스트로 대표) 모친상=24일 일산 국립암센터, 발인 26일 오전 6시 031-920-0301
- ◇金命俊씨(세계일보 편집1부 기자) 부부상=23일 여수성심병원, 발인 25일 오전 11시 061-653-0499
- ◇成者=전 의환은행 이태원지점장) 耆三(전 삼성물산 부장) 耆鳳(대 한주택공사 삼산사업단장) 耆俊씨(KBS부산방송총국 취재2부장) 모친상=源春(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과장) 英華씨(하하투어 대리) 조모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3410-6909
- ◇宋哲元씨(에듀TV 회장) 모친상=李貞淑씨(서예가) 시모상=24일 서울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10시 02-760-2022

책갈피 속의 오늘 1989년 문인학 목사 평양 방문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랐던 윤동주의 마음으로, '모든 통일은 선(善)'이라고 외쳤던 장준하의 마음으로 여기에 씁니다." '분단시대의 통일꾼' 문인학 목사. 1989년 3월 그가 평양 땅을 밟았다. "걸어서라도 평양에 가겠다"던 당시로서는 소름끼치는(?) 문 목사의 시 제목 그대로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곁행한 것이다. 문 목사가 김일성과 '사회주의적 포용'

시간이 많아졌다. 옥살이는 화려(?)했다.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34개월. 6차례에 걸쳐 11년2개월을 철창 속에서 보냈다. 주변에서 수감을 안타까워할 때마다 간디의 말로 대신했다. "신랑이 신부 방에 들듯이!" 방북 당시 '친북(親北)행적'으로 논란이 일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담당 검사에게 내가 그랬지, 그대 찬양 그 못했다! 만날 욕하고 그러면서 통일이 되



金日成과 포옹하다

을 나누는 장면이 전해졌을 때 국민들은 두 눈을 의심해야 했다. 그 완고했던 냉전(冷戰)의 한 모서리가 깨져나가는 충격에 휘청했다. 독실한 목회자의 한길을 걸었던 그가 현실에 눈을 뜬 것은 '노지막이'였다. 그의 절친한 친구 장준하가 변사체로 발견된 1975년 그 여름이었다. 그래서 50대 후반의 이 '늙둥이'는 스스로 '아호'를 '늙둥'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문 목사는 '3·1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해 숨막히던 유신체제에 도전한다. 방정호 정권의 시퍼런 칼날에 맨몸을 들어대었다. 그리고 한 해 인근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고양=이동원기자 argus@donga.com

찾아내 찬양 고무해야지." 방북이 감상적이라고? 환상적이라고? "그것은 시적(詩的) 투시력과 정치적 리얼리즘의 결합이야. 시인의 눈으로 '역사의 저쪽'을 꿰뚫어봐야 해. 그러지 않고는 남의 손으로 묶인 '역사의 매듭'을 풀 수가 없어." 그 무엇보다 시인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문 목사. 그는 시에서도 '남(南)누리 북(北)누리 한누리 되는 날'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봄내, 당신의 애기를 날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통일의 애기는 '늙둥'에 잉태되었다. 이기우기자 keywo@donga.com

연고 바르면 AIDS 걱정 끝

영국서 개발 곧 임상실험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감염을 예방하는 연고 개발돼 콘돔의 대체제로 사용될 전망이다. BBC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여성이 사용하는 이 연고는 남성 성상세포를 거부할 경우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고는 성관계를 갖기 직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며 HIV 외의 다른

성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BBC는 전했다. BBC 등 외신들은 영국의학연구소와 런던 임페리얼대 연구팀이 개발한 이 HIV 감염 방지 연고제에 대한 대규모 임상실험이 조만간 아프리카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